

173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40) 뒤틀린 면과 폴리에스터 스트라이프 천

□ 뒤틀린 면과 폴리에스터 스트라이프 천

해설)

- 합성섬유와 면소재로 된 스트라이프 무늬의 여성용 재킷을 석유계 드라이클리닝용제로 처리했는데, 천 전체가 물결치는 결점이 발생하였음.
- 또 현미경 관찰로부터 면섬유의 팽윤 흔적은 없었지만, 소매끝동, 옷자락 등에 면부분의 끝이 오목한 형태로 되어 있어 면이 수축된 것을 알 수 있었음. 따라서 천이 물결치는 결점이 발생한 원인은 세정과 건조공정에서 발생되었다기보다 스팀 마무리시 완화수축에 의한 현상으로 추정되었음.



- 즉, 세로방향으로 장력이 걸린 상태에서 수지나 열로 고정되어 있던 것이 용제나 증기의 영향에 의해서 본래 상태로 돌아오는 현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.

- 면과 폴리에스터는 습기나 수분에 의해서 수축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, 면과 폴리에스터를 폭이 넓은 스트라이프 무늬로 디자인하였을 때 소재특성에 따른 수축현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. 제품 설계 및 디자인시에는 비에 젖거나 땀에 젖을 가능성이 있는 실용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문제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음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www.textilecare.kr